

보도시점 : 2024. 2. 15.(목) 06:00 이후(2. 15.(목) 석간) / 배포 : 2024. 2. 14.(수)

인천·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

- 물류취약지역의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... 총 41억 국비 지원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,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‘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’ 대상지를 선정하였다.

○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·보관·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'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.

□ '24년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두 달간('23.11~'24.1) 공모를 시행하였으며,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*해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,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.

* 사업의 필요성, 기대효과, 추진의지, 발전방향성 등을 종합평가(서면+발표평가)

< 최종 선정 사업 내용 >

지원대상	사업 내용
인천광역시	□ 사회적 초격차 해소를 위한 수요대응형 스마트 적재관리 시스템
충남 서산시	□ 서산시 스마트시티 조성 기반 물류(드론) 인프라 조성
부산광역시	□ 찾아가는 저온창고 공유서비스 실증·확산 지원
서울특별시	□ 도시철도 인프라 활용 물품보관·배송 서비스 구축 실증
경북 김천시	□ 아파트 택배갈등 해결을 위한 생활물류 상생플랫폼

○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사업당 5~16억원(평균 8억원)의 국비를 지원(지원률 50%)받게 된다.

- 국토교통부는 '21년부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택배·소상공인 공동물류 체계 실증, 드론·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인운송 실증(성공률 드론 95.7%, 로봇 99.6%)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 기회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물류체계 전환 기반을 조성해 왔다.
-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시행되면 화물차 적재효율 개선·통행거리 단축, 물류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연구원, 지자체, 물류기업 등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“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 기술이 활성화되면 물류취약지역의 물류문제 개선,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뤄질 것”으로 기대한다면서,
- “선정 이후에도 지자체, 사업 참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우수한 선도사례를 발굴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근오 (044-201-3993)
		담당자	사무관	전병규 (044-201-3995)
		담당자	주무관	김하원 (044-201-4000)



① 인천광역시

- 인천광역시는 디지털 센서기술과 필요에 따라 차량 적재함을 자유롭게 구분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하나의 화물차량 적재공간에 생활물류, 원재료, 서비스 자재 등 다양한 짐을 함께 운송함으로써 도심의 물류효율을 높이고 배송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.



② 충남 서산시

- 충남 서산시는 서산시가 보유한 드론 인프라를 활용해 생활물류에 취약한 고파도, 분점도, 우도 등 유인 도서지역을 순환하는 드론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섬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, 친환경 물류체계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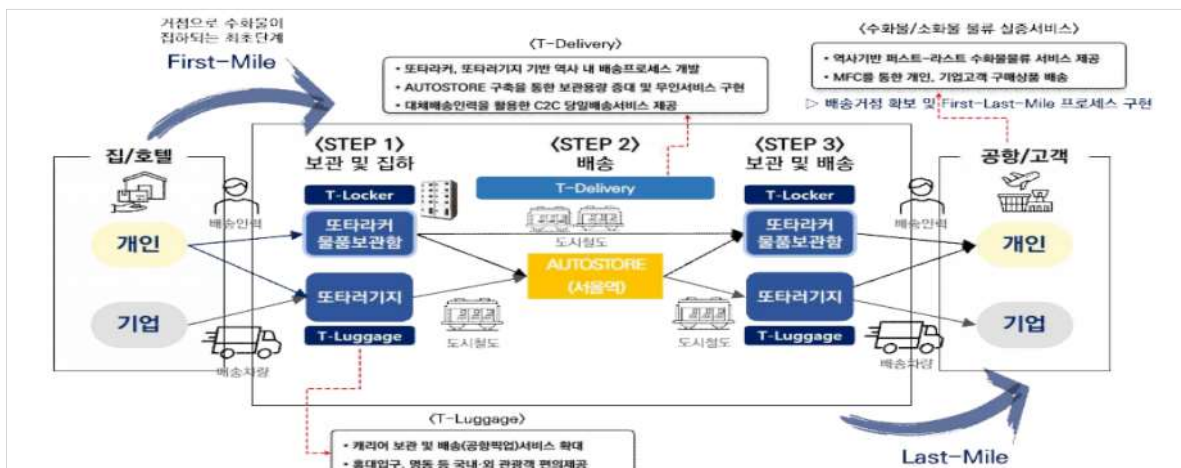
③ 부산광역시

- 부산광역시는 저온보관창고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저온보관이 필요한 기간동안 창고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수산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각종 농산물의 제철 출하 시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

④ 서울특별시

- 서울특별시는 개인과 기업의 수화물을 도시철도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퍼스트-라스트마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, 우선 서울을 찾는 내·외국인 관광객 여행 캐리어 보관·배송 서비스부터 시작해 생활물류 서비스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

⑥ 경북 김천시

- 경북 김천시는 시가 보유한 공영주차장을 기반으로 지역의 거점 생활물류 공용센터를 구축하고, 시민공유형 화물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주민이 스스로 배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택배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.